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육성

SW분야의 혁신적인 재능을 갖춘 100명의 학생을 제 1기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SW Maestro) 과정” 연수생으로 선발하고, 9.8(수), 발대식을 성황리에 지식경제부가 개최하였다.

“SW Maestro 과정”은 지난 2월 발표한 「소프트웨어(SW)강국 도약 전략」의 SW 최고인재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혁신적인 발상과 재능을 겸비한 학생들을 선발(100명)하여, SW 최고 교수들(멘토)의 실전 노하우 전수를 통해, SW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국가 인재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위해, 지경부는 2개월여(4월~5월)에 걸쳐, 관련 협·단체 등의 추천 및 3차에 걸친 검증을 통해, SW 분야별 최고 교수인 30인의 “SW Maestro 멘토단”을 위촉(6.3일) 하였다.

1개월여(6.3~6.30)의 연수생 선발 공고를 통하여, 350여명의 지원자를 접수받아, 1개월간(7월초~8월중)의 심사를 거쳐 최종 100명을 제1기 “SW Maestro 과정” 연수생으로 선발하였다.

“SWMaestro 과정” 연수생 선발 결과(100명)로 보

면, 성별에서 남 93명(93%), 여 7명(7%)이다. 연령(평균 22.5세)에서 10대 25명(25%), 20대 74명(74%), 30대 1명(1%)이다. 학력에서 고교 在 19명(19%), 대학 在 · 卒 71명(71%), 대학원 10명(10%)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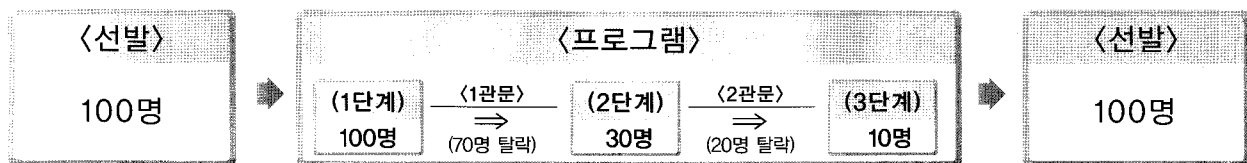
심사에는 멘토단 전원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였으며, 지원자가 개발한 SW 시연 등을 통해 창의적인 사고 능력과 성장가능성, SW 개발에 대한 열정 및 의지 등을 검증하였다.

이번에 선발된 100인의 SW 마에스트로 연수생들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최고 교수인 멘토 들도 감탄할 정도의 자질을 갖춘 고등학생 연수생이 19명(19%) 포함되어 있으며, 선린인터넷고 8명, 디지털미디어고 6명 등이다.

대부분의 연수생이 남성임에도 뛰어난 능력을 갖춘 여성 연수생이 7명(7%) 포함 되었고, 수도권 출신 연수생과 견주어 전혀 손색이 없는 지방 출신 연수생이 26명(26%) 포함되었다.

안동대1명, 부경대 1명, 한동대 1명, 울산대1명, 강원대1명, 경북대 2명 등이고, 이외에도, 국내외 유명 SW



“SWMaestro 과정” 연수생 선발 결과(100명)

- 성별 : 남 93명(93%), 여 7명(7%)
- 연령(평균 22.5세) : 10대 25명(25%), 20대 74명(74%), 30대 1명(1%)
- 학력 : 고교 在 19명(19%), 대학 在·후 71명(71%), 대학원 10명(10%)

경진대회 상위 수상자(48명) 및 대통령 과학장학생 등 혁신적인 재능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들이 다수 선발되었다. Microsoft Imagine Cup 우수, IEEE Computer Society Student Competition 1위 등이다.

최경환 장관은 어려운 경쟁을 뚫고 선발된 연수생들에게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임명장 수여와 함께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휴대폰 제조 능력이 없는 애플이 ‘아이폰’을 통해 기존 하드웨어 기업을 제치고 모바일 시장의 최강자로 부상한 사례는, 하드웨어 중심의 국내 기업이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에게 주도권을 빼앗겨 하청기업으로 전락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발대식에 참석한 연수생들이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꿈과 최고의 실력,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열정을 갖추므로 우리나라 SW 산업의 미래를 선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제1기 “SW Maestro 과정” 연수생은, 앞으로, 3단계의 관문별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되며, 10명 내외의 연수생만이 “국가 SW Maestro”로 최종 선정될 것이다.

총 1년 2개월이 소요될 검증기간 동안에는 단계별 차별화된 인센티브(장학금, 해외견학 등)가 제공되며, 최종 선정된 “국가 SW Maestro”에게는 지경부 장관이 수여하는 인증서와 함께 3천만원 상당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본인 희망에 따라, 군복무시 국방부 Cyber 관련 부대 근무 연계, 취업 및 창업 연계 지원(창업 컨설팅, 공간, 자금 등)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과정 세부 추진 계획을 보면, 멘토단 구성에서 업계, 분야별 최고로 인정받는 SW개발자가 자격이 있으며 3차에 걸친 전문가 추천 및 면접, 9개 분야 총 30명을 선정하였다.

연수생 선발은 혁신적 발상과 재능을 겸비한 고등, 대학, 대학원생 이 대상이고, 일간지 광고 등을 통한 공개 모집, 개별 연락을 병행하여 모집하였다. 선발기준에 따라 멘토단에서 선발한 것이다.

프로그램 개요를 보면, 관문별 탈락시스템을 도입하고 연수생 간 경쟁심을 유발함으로써 교육의 목적을 극대화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기간은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선정시까지 1.2년이 소요된다.

연수과정은 3단계로 구성된다. 제1단계는 4개월로 100명이 참여하고, 제2단계는 7개월로 30명이 참여하며, 제3단계는 2개월로 10명이 참여한다. 절대적 검증 기준을 통과한 최종 인원이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가 되며 인증식은 2011년 9월 중에 수요될 것이다.

인센티브안은 연구공간을 제공하고 프로젝트 개발비, 특허출원 대행 등 공통사항이다. 단계별 인센티브는 제1단계는 월 백만원의 장학금과 최고급 노트북이 제공된다. 제2단계는 월 150만원의 장학금, 단기 해외 견학 등이 제공된다. 제3단계는 월 이백만원, 국내외 프로젝트연수 등이 제공된다.

마에스트로 인증후 지원안은 기업 취업 및 소프트웨어 결과물의 창업을 지원하고 군복무 연계 지원한다. 국방부 사이버 관련 부대를 복무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기수별 클럽 결성을 지원한다.

